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미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한국예술 가곡 연구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윤은경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한국예술 가곡 연구

김 미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 악 교 육 과

윤 은 경

인 준 서

윤은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장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문초록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한국예술 가곡 연구

윤 은 경
음악교육전공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음악과 생활」 10종 안에 있는 한국예술 가곡들이 가창영역의 특징에 따라 시대별로 고루 잘 반영되어 있는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나올 2015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의 발전 방안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예술가곡의 역사와 시대별 음악적 특징 분석을 하여 한국 예술가곡의 흐름을 알아보았다. 각 시대별 분류의 특징을 1920-1930년대 일제 강점기 음악, 1940-1950년대 광복 후 음악, 1960-1980년대 한국예술 가곡 음악, 1990년대 현대 음악으로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설명하였다.

이런 4가지시기의 특징에 나타난 각 시대별 대표곡으로는 1920-1930년대 이은상 작사·박태준 작곡의 <동무생각>, 1940-1950년대 이광석 작사·조두남 작곡의 <산촌>, 1960년-1980년대 발전기1, 발전기2, 발전기3를 통틀어 한상익 작사·최영섭 작곡 <그리운 금강산>, 김동환 작사·김규환 작곡 <남촌>, 이수인 작사·작곡 <내 맘의 강물>, 김효근 작사·작곡 <눈>, 1990년대 박원자 작사·김규태 작곡 <하얀 겨울로 간다>가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의 한국예술 가곡빈도수에 따라 가장 높은 5곡의 가곡을 선정하여 가. 작곡가의 이해, 나. 곡 해설 및 분석, 다. 악곡의 형식, 라. 연주형태, 마. 시대적 특징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80년대 2곡, 60년대와 70년대, 90년대에 곡이 각각 1곡씩 나왔고, 각 출판사마다 시대별 곡의 수가 최저 1곡에서 최대 10곡까지 있었지만,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2015년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교과서는 한국예술 가곡이 우리 음악사의 흐름에 중요한 부분임을 좀 더 깨닫고 우리 한국예술 가곡만이 지닌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곡의 배경, 음악적 이론과 작곡가의 대한 설명, 다양한 가창활동 등이 교과서 안에 충분히 기재되어 우리가 바르게 전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악보목차
표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3. 선행연구 고찰	3
II. 이론적 배경	5
1. 일제 강점기 음악	5
2. 광복 후 음악	10
3. 한국예술 가곡 음악	11
4. 현대 음악	13
III. 연구방법	14
1. 연구대상	14
2. 분석기준	15
IV. 연구 결과	16
1.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음악과 생활」 10종 비교 분석	16
2. 가곡의 빈도수	19
3. 가곡의 조성분석	21
4. 작사·작곡가 및 시대 구분	22
5. 빈도수 높은 가곡 분석	23
V. 결론 및 제언	36
참고문헌	39
Abstract	41

악보 목차

<악보-1> 현제명 <나물 캐는 처녀> -----	9
<악보-2> 박태준 <동무생각> -----	10
<악보-3> 김효근 <눈> -----	24
<악보-4> 이수인 <내 맘의 강물> -----	27
<악보-5> 김규환 <남촌> -----	29
<악보-6> 최영섭 <그리운 금강산> -----	31
<악보-7> 임궁수 <강 건너 봄이 오듯> -----	34

표 목차

<표-1> 한국예술 가곡의 시대적 구분 -----	5
<표-2>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음악과 생활」 10종 -----	14
<표-3> 제재곡 빈도수 -----	19
<표-4> 조성 분석 -----	21
<표-5> 시대구분 -----	2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늘 음악과 함께 한다. 어느 곳에 있던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예술적 가치란 인간 생활에 대한 가치이며, 예술은 인간의 사상을 키워준다.”고 하였다. 이는 예술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뜻이며, 또 학교교육은 감수성과 정서면의 훈련을 의미하는 예술적, 심미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하여 예술 교육을 통해서 정신과 물질, 마음과 육체의 통합된 결합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¹⁾ 이렇듯 음악은 인간 정서의 발달에 관계되는 본질적인 영역으로서 전인적인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히 학교에서는 바른 음악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사상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음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반영하기도 한다. 시대에 따라 사회와 문화, 사상, 가치관이 변하듯 음악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전개되어 가는 ‘시간예술’이기 때문이다. 레온하드(Charles Leonhard) 말에 의하면 “사회가 변화하면서 음악교육은 기회의 폭이 넓어지고 있지만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간의 정서적 결핍을 보완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성하는 데에 음악교육이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에 편중된 교육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지식의 성공적인 학습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에 대한 적절한 태도에 달려 있다.”²⁾라고 말했다.

음악교육도 원래 있었던 것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수용하고 변화시켜 나간다. 특히 흐르는 시대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모든 기본바탕의 지식이 되는 것으로서 자국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 학습이 선행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음악의 역사를 연구하여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시와 음악의 결합으로 탄생한 아름다운 한국예술 가곡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1) 박봉득, “Dewey의 예술론” 교육학 연구. 제17권 제1호 (1979) p.33, 재인용.

2) Charles Leonhard, Robert W. House 공저, 안미자 역(1992),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p.125

한국예술 가곡은 우리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다른 예술 가곡에 비해 악곡의 의미파악이 용이하며 우리의 정서가 잘 반영되어 있는 곡이기 때문에 한국예술 가곡을 학습함으로써 우리의 조상들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³⁾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음악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4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그 중 가창영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창 학습 도구의 하나인 가곡은 서양가곡과 한국가곡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한국예술 가곡은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가 스며들어 있고, 고유의 정서와 열이 있는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예술 가곡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고 계속해서 전승해야 하며, 교과서라는 매개체는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자료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올바르게 개선하고 나은 방향으로 잡아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음악과 생활」 10종 안에 있는 한국예술 가곡들이 시대별로 고루 잘 반영되어 있는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나올 2015 교육과정 음악 교과서의 발전 방안에 도움이 되고자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예술 가곡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위해 가곡의 역사와 흐름을 조사한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음악과 생활」 10종을 중심으로 시대별 한국예술 가곡의 빈도수와 그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 도출한 빈도수를 바탕으로 각 시대에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한국예술 가곡 제재곡을 선정하여 악곡분석을 한다.

3) 김미애(1995), 「한국 예술 가곡」, 시와 시학사, p.9-10

3. 선행연구 고찰

이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10종 교과서 중 가창 영역인 한국예술 가곡을 연구한 논문들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기악영역과 국악영역의 비중이 많고 한국예술 가곡의 논문자료가 부족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분석에 한하여 참고하였다.

김성경은⁴⁾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한국가곡의 시대별 분석’에서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가창곡 중에서 한국가곡만을 선정하여 각 교과서별로 박자, 음역, 조성, 연주형태, 주제, 작곡 연대별로 분석하였다. 1920년대부터 1990년 이후까지 10년 단위로 나눠서 시대적 특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일반적 분석에서 <그리운 금강산>이 전체 8종 중 6권에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고, 박자는 4/4박자가 전체 93곡 중에서 48곡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음역은 11도가 26곡으로 27.8%의 비율로 가장 많이 나온 음역이고, 조성은 C가 18곡 1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f# 과 a가 각 1곡(1.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연주형태에서는 제창이 77곡으로 82.6%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으며, 주제는 대체 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사랑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작곡연대별 분석은 60년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희진⁵⁾은 ‘한국가곡의 시대적 연구-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가곡을 중심으로-’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8종에 수록된 한국가곡이 학생들이 배우는데 있어서 다양한 악곡을 경험하고, 풍부한 음악적 감수성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데 부합하게 곡을 선정하였는지, 또 시대별로 한 시대에 치우침이 없이 다양한 시대의 악곡이 교과서에 제시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8종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가곡 중 41곡이 60, 70년대에 작곡된 곡으로 전체 99곡 중 약 44.57%에 달하였고, 다른 시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 30년대와 80, 90년대의 한국가곡은 다른 시대 작품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의 곡을 실고 있다. 이는 다양한 시대의 한국가곡을 교과서에서 제시하지

4) 김성경,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한국가곡의 시대별 분석’ 성신여자대학원 음악교육전공, 2006

5) 정희진, ‘한국가곡의 시대적 연구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가곡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대학원 음악교육전공, 2008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제재곡들은 시대적으로 보다 다양한 음악을 경험하도록 도와줌으로서, 음악에 관련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대응⁶⁾은 현대의 음악교과는 음악의 미적 본질의 체험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창조성을 계발하여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협동심을 육성하여 여가를 선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가곡은 우리 민족의 애환과 정서를 담아 시와 음악의 이상적인 배합을 통해 예술로써 승화시킨 음악장르이며, 1920년 작곡된 흥난파의 ‘봉숭아’를 시작으로 한국 근대사의 흐름에 의해 점점 발전해왔다고 말한다. 이러한 근대사의 흐름에 따라 그 시대의 특징이 음악작품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한국가곡은 그 문화,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작곡된 신작가곡은 현재 우리의 삶의 내면이 음악 안에 반영되어 있음에 더욱 큰 예술적 가치가 있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1980년대 이후 작곡된 신작가곡 중에서 ‘그대 그리움’, ‘눈’, ‘내 맘의 강물’, ‘강 건너 봄이 오듯’의 분석을 통하여 실재수업에서의 효율적인 지도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음악의 본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음악수업이 이루어짐에 목표로 두었다.

송현진⁷⁾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정된 고등학교 8종의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가창영역 중 수록된 빈도수가 높은 한국가곡 7곡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익히기 쉬운 곡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풍부한 음악적 감수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는데 부합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현 실정에 맞는 원활한 음악수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결과, 각 8종의 교과서는 한국가곡의 수가 절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취약한 재정 부분과 주1회 부족한 수업시간 설정으로 인해 약기를 다루거나 감상영역의 음악활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한국가곡은 우리의 사상과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곡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의 소중한 음악이 흘러가는 가요처럼 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음악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6) 박대응, 한국가곡의 지도방법 연구 -신작가곡 「그대 그리움」, 「눈」, 「내 맘의 강물」, 「강 건너 봄이 오듯」을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 음악교육전공, 2011

7) 송현진, 고등학교 1학년 8종의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한국가곡 비교분석 - 빈도수가 높은 7곡을 중심으로 -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2008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한국예술 가곡이 시작된 1920년대부터 1990년대 이후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쳐 광복 후 한국예술 가곡이 점차 발전하게 된 1960년대 이후는 3분기로 나누어 한국예술 가곡의 흐름과 시대별 음악적 특징을 알아본다.

<표-1> 한국예술 가곡의 시대적 구분

시대	연도
일제 강점기 음악	1920-1930년대
광복 후 음악	1940-1950년대
한국예술 가곡 음악	1960-1980년대
현대 음악	1990년대-

1. 일제 강점기 음악⁸⁾

1) 조선총독부의 음악교육

조선총독부는 한일합방 다음해인 1911년부터 45년에 걸쳐서 4회의 ‘조선교육령’을 단행했다. 제1차 조선교육령기는 1911년부터 22년까지이고, 제2차 조선교육령기는 22년부터 38년까지, 제3차 조선교육령기는 38년부터 41년까지, 제4차 조선교육령기는 41년부터 45년까지이다.

조선총독부는 4회에 걸쳐서 조선교육령을 시행하면서 일본 양악과의 동화를 꾀하였다. 이것은 조선인의 정체성을 없애고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조선총독부의 ‘신민화정책’에 기인한 것으로서, 일제 강점기 전반에 걸쳐 행해진 조선총독부의 음악 정책 중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이 신민화정책이다.

제1차부터 제2차까지, 다시 말해 1911년부터 38년까지의 음악교육의 목표는 크게 “심정을 순정하게 하고 미감을 양하여 덕성의 함양에 자함”이라는 것이었는데, 제3차와 제4차는 “미감을 양하고 덕성의 함양에 자함”이라는 것과 함께, “황국 신민으로서의 정조를 순화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보장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차에서는 음악 교육의 목표를 아동들의 정서 순화와

8) 이강숙·김춘미·민경찬(2002), 우리양악 100년, 현암사, p.78-85, 요약정리

덕성 함양에 두었는데 비해, 제2차에서는 「기원절」, 「천장절」, 「일월일일」, 그리고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와 같은 ‘의식 창가’를 반드시 가르치고 부르도록 하였으며, 제3차에서는 음악 교육의 목표를 “황국 신민으로서의 정조를 함양함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과, 제4차에서는 “국민 음악 창조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즉 교육 정책의 중심이 제국주의 교육에서 군국주의 교육으로 옮겨지면서, 음악 교육의 목적도 개인의 정서 함양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헌신으로 바뀐 점을 알 수 있으며, 점차 교육 전반에 걸쳐 군국주의 색채가 노골화되어 갔다.

교육을 통해서 교수된 음악의 과목명은 제3차까지는 ‘창가(唱歌)’였으나 제4차부터는 음악(音樂)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가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일본 창가였으며, 제1,2차는 단음 창가를, 제3차에서는 중음 창가까지, 제4차에서는 운창가까지 확대되었다. 교과목의 명칭이 창가에서 음악으로 바뀌는 이유는, 3차까지는 노래만 가르친 데 비해 4차에서는 교육이 악기 지도와 감상 및 청음 교육으로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교과서가 없을 경우에는 조선총독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음악 교과서의 변천 과정을 보면, 식민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며 진행되어 정책이 바뀌면 음악 교과서도 뒤따라 바뀌었다. 주로 일본 교과서를 재편집한 형태였으므로 일본교과서가 바뀌면 따라 바뀌는 식으로, 의식 창가와 군가나 일본 예찬 곡들의 비중도 차츰 높아지는 추세를 그대로 따랐다.

조선총독부의 음악 교육은 한마디로 ‘식민 통치 목적을 달성하고, 자국에 대한 충성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시행된 일련의 강제적 교육행위’라고 정리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음악 교육을 통하여 조선의 아동들로 하여금 정서를 순화시키고 덕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었지만, 모든 음악 교육 정책은 자국의 이익과 관련하여 입안되고 시행되었다. 즉 자국의 조선 점령 정책의 강화 수단으로 음악을 활용한 것이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독자적인 음악 교육을 불허하였고, 또 조선의 음악 문화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민족 교육·민족 정서·민족 문화의 자발적인 발전을 억압하였고, 조선의 민족혼을 없애었으며, 학교에서는 조선어로 노래하는 것마저 금지하였다. 조선의 전통 음악이나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 조선인이 작곡한 곡은 한 편도 가르치지 않았다. 조선

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멸시하고 비하토록 하여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발견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으며, 조선이 쌓아올린 문화와 교육의 전통 유산을 파괴하였다. 이는 조선 미증을 일본의 공동체적 풍습 속에 고착시킴으로써 스스로 자국의 전통음악을 접하고 익히는 기회와 노력을 가능한 한 박탈하려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의 음악 교육은 결과적으로 음악 문화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애당초 그것은 일본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조선인들로 하여금 수탄 고통 속에서도 자국의 노래를 불러 독립을 위한 국권 회복 운동과 실력 양성 운동 등의 민조기 운동을 낳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아동은 일제 강점기 내내 학교에서는 일본 창가만을 불러야 했고, 또 정서적인 면에선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일본 창가로 각인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는 그것에 대응한 또 다른 양악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2) 창가

우리나라 근대 창작 음악의 역사는 1905년 김인식(1885~1962년)에 의해 ‘창가’라는 형태로 시작한다. 그리고 김인식과 아울러 이상준(1884~1948년), 홍난파(1897~1941년), 정사인(1881~1958년), 백우용(1883~1930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작곡가가 등장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김인식, 이상준, 홍난파는 선교사에게서, 양악대 출신인 정사인과 백우용은 에케르트에게서 서양 음악을 배웠다. 즉 우리나라 초기의 작곡가들은 19세기 말에 태어나 20세기 초에 작곡을 시작했으며, 국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음악을 배웠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또한 이들은 모두 창가를 작곡했다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창가란 원래 일본의 ‘唱歌(쇼우카)’에서 유래된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일본의 창가는 ‘메이지유신 이후에 학교 교육에서 사용된 노래 또는 교육용 노래’라는 한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있어서 창가란 당시 불렀던 서양의 노래 또는 서양식의 노래 모두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창가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은, 찬송가를 비롯하여 찬송가나 서양 노래의 선율을 차용하여 만든 모든 노래, 일본의 군가와 창가 및 그 선율을 차용한 모든 노래, 한국의 창작 동요와 창작 가곡이 출현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창작 성악곡, 1945년 이전 학교 교육에서 사용된 모든 노래들이다. 그리고 그 노래의 국적을 불문하고 신식 노래를 모두 창가라 하였기 때문에, 서양의 노래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 작곡한 노래와 한국 사람이 작곡한 노래 모두를 창가라

하였다. 그러므로 여러 종류의 애국가와 독립군가, 항일투쟁가 등과 같이 항일과 반일을 내용으로 한 노래나, 그 역에 있는 친일적인 내용의 노래도 창가로 불렸다.

창가는 원래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노래’라는 기능을 해야 했다. 그러나 학교의 노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창가로 국한되었으므로, 한국의 창작 창가는 학교의 참고용 교재로 만들어지긴 했어도 오히려 학교를 벗어난 바깥에서 불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한국의 창작 창가는 학생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계몽적이고 애국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미적체험’보다는 계도적인 사회적 기능이 더 중요시되었다.

창작 창가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한국의 양악 창작 음악사가 이로 인해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점, 일반인이 우리가 만든 양악의 선율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일반인이 우리가 만든 양악의 선율을 본격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리하여 이로부터 동요, 가곡, 대중가요, 국민가요 등이 나오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언어를 가사로 하여 우리의작곡가들이 만든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한국 창작창가의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흥난파 가곡

창가시대를 거쳐 가곡의 시대로 전화되는 1920년대는 최초의 가곡 <봉선화>를 작곡한 흥난파와 미국 유학 후 귀국하여 자필 활동을 한 안기영, 그리고 송실전문을 졸업하고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미국 유학을 떠난 박태준 등을 들 수 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흥난파는 1933년 이전에 발표한 곡들을 모아 「조선 가곡 가곡집」을 출판하였다. 이 가곡집은 노산 이은상 선생의 시조에 의한 것으로 15편의 가곡으로 이루어졌다.

흥난파의 <봉선화>에서 시작된 한국가곡은 30년대에 들어 현제명, 채동선, 김동진, 이흥렬, 김세형, 조두남, 김성태 등의 활동이 전개된다.

1930년대 초기에는 소위 애창가곡, 채동선의 예술성 높은 가곡이 서정가곡으로 출발을 보이면서 30년대 중반에 이므로 우리 가곡은 근대적 가곡 형태로 변하게 된다.

4) 현제명 가곡

현제명이 작곡을 시작한 것은 미국의 건(Gunn) 음악학교에 재학하던 때부터였다. 그 당시 작곡한 곡들 중에서 <석양>과 <집으로 오라>를 귀국 발표회에서 발표하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작곡 활동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31년 [작곡집 제1집]을 출판하였는데 여기에 수록된 14곡의 가곡들을 순서대로 적어보면, <조선이 노래> (현, 대한의 노래), <나약한 가을> <니나> <가을> <전원의 노래> <환씨의 해도> <성자의 밤> <여름저녁> <고향 생각> <새벽이 종소리> <오라> <성탄 노래> <우리의 봄노래> <나물캐는 처녀>이상과 가다. 이 중에서 <조선의 노래>는 민족 사상을 고취시키는 노래라 하여 일제에 의해 금지곡이 되었다.

1933년 6월에는 「작곡집 제2집」을 출판했고, 그 해 10월 이화여전 강당에서 열린 흥남파와의 2인 작곡발표회에서 그 곡들을 발표하였다. 이때 발표된 현제명의 가곡은 <가고파> <이 마음> <그 집 앞> <산 위에 올라> <새가 되어 배가 되어> <소경되어지이다> <진달래>등이다.

다음 곡은 현제명의 <나물캐는 처녀>로서 2/4박자의 경쾌하고 밝은 노래이다.

<악보-1>⁹⁾

나물 캐는 처녀

Allegretto grazioso

현 제명 작사
현 제명 작곡

푸 른 잔디 풀 위 코 봄 바 람 은 불 고 아 겨 령 이

5) 박태준 가곡

박태준은 1900년 대구에서 출생하여 대구 계성중학을 거쳐 1921년 평양 숭실전문을 졸업하였다. 그는 1922년 가곡 <사우> <평온한 바다> <물새 발자욱> 등을 작곡했으며 1925년에는 동요 <오빠 생각> <집 보는 아기 노래> <오뚜기> <중중 때때중> <양양 범버꾸> 등을 작곡하여 압박당한 민족의 설움을 노래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1933년에는 가곡집 「물새 발자욱」을 출판하였으며 주로 동요 작곡에 전념하였다.

9) 현제명 작사·작곡 <나물캐는 처녀>

다음 악보는 그의 작품인 <사우>의 일부이다.
원제가 <思友>인 곡을 번역, <동무생각>으로 알려짐.

<악보-2>10)

동무 생각

이 은상 작사
박 태준 작곡



1. 불 의 교 향 악 장 이 울 려 퍼 지 는
2. 더 운 햇 빛 바 닷 사 람 이 은 밀 한 밤 동 산 이
3. 서 서 바 닷 사 람 이 은 밀 한 밤 동 산 이
4. 초 리 없 이 은 밀 한 밤 동 산 이

2. 광복 후 음악¹¹⁾

1) 해방가요의 등장

‘해방가요’란 말 그대로 조국 독립의 기쁨을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가요 형식에 담아 노래한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가요의 한 부류에 속하지만 음악의 장르를 일컫는 용어는 아니며, 해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노래한 범국민적인 노래였다. 당시 수많은 해방가요가 등장하였는데, 그 중에서 김순남의 「해방의 노래」와 김성태의 「독립 행진곡」 그리고 이견우의 「여명의 노래」가 특히 애창되었다.

이런 노래들은 해방 공간과 좌우의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 시대를 풍미하였지만, 시대가 변하자 점차 잊혀진 노래가 되었다.

2) 음악교육

광복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초·중등학교의 음악 교육은 조선총독부의 주관 하에 일본식 체도와 일본인 교사에 의해 일본 창가를 교재로 이루어졌다. 광복 직후 ‘홍익인간(弘益人間)’과 미국식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음악 교육을 시행하려고 하였지만, 시설 및 교사의 부족과 정치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1946년 8월 15일에 군정청 문교부가 편찬

10) 이은상 작사·박태준 작곡 <동무생각>

11) 이상만, 「음악개관」, 한국 예술총람, p.224, p.227

한 『초등 노래 책』이 발행되어 임시방편으로나마 음악교육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 수록된 곡을 보면, 「학교」, 「봄나드리」, 「물방울」, 「나팔꽃」, 「까막잡기」, 「뚝딱배」, 「맹꽁이」, 「산토끼」, 「둥근달」, 「설날」, 「눈 오신 아침」, 「시계」, 「애기별」, 「키 대보기」, 「안녕하세요」, 「바이올린」 등 16곡이었다. 따라서 『초등 노래 책』은 광복 후 처음 간행된 음악 교과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음악 교과서라는 의미가 있다.

이 책은 한국 창작 동요를 중심으로 편찬되었으며, 어린이들의 순수한 정서 함양을 위해 가창(歌唱) 중심으로 편집된 특징이 있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는 국정(國定)이었고 음악 교육은 필수였는데 비해, 당시 6년제였던 중학교의 음악 교과서는 검정제(檢定制)였고, 1·2·3학년은 필수, 4·5·6학년은 선택이었다.

최초로 만들어진 중등학교 음악교과서는 1947년 7월 중등음악 교과서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임시중등 음악교본』이다. 여기에는 「애국가」와 「한글노래」(채동선 작곡, 이극로 작사)를 비롯하여 「건국의 노래」(나운영 작곡, 김태오 작사), 「건국 행진곡」(김순남 작곡, 김태오 작사), 「아침해 고을씨고」(김성태 작곡, 임학수 작사)등과 같은 가곡과, 러시아·중국·독일·영국·이탈리아 등 각 국의 민요가 수록되었다.

3. 한국예술 가곡 음악¹²⁾

1) 가곡 발전기 1

1960년대에는 4.19혁명과 5.16쿠데타 같은 불안한 정치적, 사회적인 상황에도 한국가곡은 계속 발전하였다. 우선 가곡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가 학교교육 등을 통해 높아졌으며, 가곡의 보급률도 각종 음악회나 개인독창회, 또는 음반이나 방송 등을 통해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1960년대 초에 결성된 대한음악가협회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가곡의 창작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시기의 한국가곡에서 눈에 띄는 것은 현대적 작곡기법의 사용이다. 특히 젊은 음악가들(예, 백병동)이 이러한 현대적 작곡스타일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12) 나진규(2015), 한국 가곡의 이해, 가온음 출판사, p.11-p.14, 요약정리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곡으로는 한상익 작사·최영섭 작곡 <그리운 금강산>, 박문호 작사·김규환 작곡 <님이 오시는지>, 김재호 작사·이수인 작곡 <고향의 노래>, 한명희 작사·장일남 작곡 <비목>, 유경환 작사·박관길 작곡 <산노을>이 있다.

2) 가곡 발전기 2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가곡이 양식적으로 한층 다양해졌다. 즉, 서정가곡과 현대가곡이 양 축을 이루면서도 민요풍의 가곡, 대중 친밀적인 가곡, 또는 그 반대의 전위적인 가곡 등도 많이 창작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신작가곡 발표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개인 작곡발표회는 물론 ‘서울음악제’나 ‘한국작곡가회’가 주최하는 공동발표회 등도 빈번히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수천 편의 작품이 일반에게 소개되었고, 또한 이전 시기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반이나 악보집이 대중에게 선을 보였다. 대중음악 잡지인 『월간음악』과, 『음악세계』가 발행되어 출판물을 통한 음악문화의 보급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교과서에 수록된 곡으로는 김동환 작사·김규환 작곡 <남촌>, 김연준 작사·작곡 <청산에 살리라>, 조병화 작사·김성태 작곡 <추억>, 등이 있다.

3) 가곡 발전기 3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이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졌다. 음악과 관련하여 이 시기에는 음악의 심미성과 윤리성을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대두되었다.

이 시기의 음악적 특징으로는 독일과 미국 등지에서 유행하던 다양한 실험적인 창작기법과 무조주의, 음렬주의, 아방가르드 기법 등이 가곡창작에 대거 적용된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우리의 전통적인 색채를 가미한 가곡들도 나타나 일방적인 현대지향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가곡에 가요나 동요를 접목시킨 작품들도 나타났으며, 심지어 통기타나 북으로 반주되

는 가곡들도 작곡되었다.

교과서에 수록된 곡으로는 이수인 작사·작곡 <내 맘의 강물>, 김효근 작사·작곡 <눈>등이 있다.

4. 현대 음악

1990년대에는 외래와 전통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무조건적 배격과 같은 극단적인 입장들이 다소 후퇴하면서, 국악과 양악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창작, 연주, 이론 등 수평적으로 나누어지던 음악분야를 구조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과 각 분야를 대중화시키려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동시에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 간의 이질감 해소와 음악적 통합을 모색하려는 시도도 적극 행해졌다.

교과서에 수록된 곡으로는 박원자 작사·한성훈 작곡 <하늘 빛 너의 향기>, 박원자 작사·김규태 작곡 <하얀 겨울로 간다>, 노영심 작사·노영심 작곡 <시소타기>등이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 생활」 10종의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음악과 생활」에 수록된 한국가곡만을 분석하여 제재곡들의 시대별 게재 빈도수, 내용, 등이 다양한 시대에 의해 선정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작곡연도와 한국가곡의 시대별 특징은 선행논문과 관련서적을 활용하였다.

<표-2>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음악과 생활」 10종

출판사	대표저자	대단원 구성
교학사	이홍수	·노래를 통한 표현 ·연주를 통한 소통
금성출판사	김용희	·음악의 아름다움 ·음악의 신명 ·음악의 영향력 ·음악의 즐거움 ·음악의 역사 ·음악의 다양성 ·음악과 사회
미래엔	장기범	·음악적 표현과 소통·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박영사	주광식	·노래의 전당 ·음악의 숲 ·우리의 음악 유산 ·서양 음악의 흐름 ·음악 여행 ·오디션 ·프로젝트 수업
아침나라	김광옥	·음악적 소통과 소통의 즐거움 ·표현과 감상을 통한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이해 ·음악의 생활화와 영향력
음악과 생활	양종모	·음악적 표현과 소통 ·문화적 산물로서 음악
중앙교육	윤용재	·음악이해 ·목소리로 표현하는 음악

		·악기로 표현하는 음악 ·함께 만드는 음악 ·보이는 국악사, 들리는 우리음악 ·보이는 서양음악사, 들리는 서양음악사
지학사	황병숙	·음악적 표현과 소통 ·문화적 산물로서 음악
천재교육	민은기	·음악은 ·음악의 유산 ·기악 ·새 시대의 음악 ·음악과 친구들 ·세계의 음악
현대음악	허화병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생활 속의 음악 ·음악사와 감상

2. 분석기준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교과서 별로 한국예술 가곡의 시대별로 제재곡 빈도수를 비교 분석한다.

둘째, 한국예술 가곡이 작곡된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교과서에 실린 제재곡을 바탕으로 알아본다.

셋째, 제재곡의 분석을 위해 작곡자와 작사자 및 조성, 박자, 형식, 연주형태 등 음악적인 분석과 시대적 특징을 다룬다.

IV. 연구 결과

고등학교 음악과 생활 10종 교과서 안에 수록된 한국예술 가곡의 수를 분석하고, 각 교과서의 구성과 특징을 알아본다. 일반적 분석으로 가곡의 빈도수 및 조성 분석, 작사·작곡가 및 시대 구분을 하였고, 그 중 빈도수가 높은 제재곡을 5곡을 선정하여 자세히 분석하였다.

1.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음악과 생활」 10종 비교 분석

(1) 교학사

교학사의 구성과 특징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음악적 표현과 소통’·‘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두 영역을 음악의 주요 활동 형태인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네 영역에 골고루 적용시켜 총 5개의 대단원으로 구성하였다.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공감, 소통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음악과 사회 현상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탐구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예술가곡은 대단원 [I노래를 통한 표현]에서 1.우리 마음의 노래(우리나라 노래)에 있으며 총 10곡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나 가거든>은 2001년도에 방영한 드라마 명성황후에 나왔던 주제가로 정통 가곡의 본질과 다르므로 가곡의 수에서 제외 시켰다.

이 단원의 주요 목표는 가창 활동을 통하여 음악을 이해하며, 목소리가 주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금성출판사

금성출판사의 구성과 특징은 교육과정에 따라 전체 7단원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이고 흥미로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음악과 알기 쉬운 내용들이 일곱 개의 단원에 다채롭게 펼쳐진다.

각 단원이 음악과 관련된 명화와 함께 시작한다. 내용구성은 학습 포인트와 함께하는 음악실, 악곡 해설 외에도 사진, 삽화, 보충 설명 등의 자료를 통해 음악이 생활 속에서 지니는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단원의 끝에 배운 내용을 간단한 문제와 낱말 퀴즈 등

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술가곡은 대단원 [I.음악의 아름다움] 안에 총 8곡으로 국악곡과 서양가곡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 중 <별>은 IV.음악의 즐거움 단원 안에 부분 3부 합창곡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3) 미래엔

미래엔의 구성과 특징은 교과서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따라 2개의 대단원으로 구분하여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학습목표, 활동, 보충 설명, 평가하기, 창의·이성, 알고가기, 쉬어가는 음악 이야기, 음악 플러스)등을 통해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술가곡은 대단원 [I.음악적 표현과 소통] 단원에 총 8곡이 수록되어 있었고, 교과서가 큰 대단원 2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원인 1.노래로 표현하기 중 두 번째 소단원 ‘시와 음악의 만남’에서 서양가곡과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

(4) 박영사

박영사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활동 중심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교육 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과서의 특성과 시대의 변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각 단원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단원 목표를 학생의 개인차와 발달 단계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목표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하였다.

예술가곡은 대단원 [I.노래의 전당]중 중단원에 총 7곡이 서양가곡과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

(5) 아침나라

아침나라는 ‘음악적 표현과 소통의 즐거움’, ‘표현과 감상을 통한 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 이해’, ‘음악의 생활화와 영향력’을 기본 체계로 구성하였으며, 각 영역별 주제를 중심으로 소단원을 구성하였다. 소단원은 제재곡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익히게 하고, 참고 곡을 통하여 학습 내용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재곡은 엄선하여 제시하고 도입부에 학습 목표를 서술하여 학습의 주제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악곡 해설’, ‘학습 활동’, ‘학습 정리·평가’를 통해 영역별 학습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술가곡은 대단원 [I.-1 시와 음악의 향연] 안에 총 10곡으로 서양가곡과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

(6) 음악과 생활

음악과 생활의 단원구성은 음악과 선택 교육과정이 정한 목표 및 내용의 영역과 기준에 따라 다양한 악곡과 활동을 고등학교 수준에 알맞게 엮어서 만들었다. 2개의 대단원으로 구분하고 각각 4개의 중단원을 구성하였다. 음악의 활동 영역을 ‘가창-기악-창작-감상-생활화’등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내용구성은 학습목표와 노래이야기로 곡을 설명하고 음악 속으로, 음악상자, 스스로 평가하기 등 곡의 보충설명과 이론적 설명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술가곡은 중단원 [I.음악적 표현과 소통]중 1.가곡 파트 안에 총 5곡으로 서양가곡과 나뉘어져 수록되어 있다. <언락>은 국악중 하나인 남창이므로 제외시켰다. 다른 출판사 교과서에 비해 한국예술 가곡이 비교적 적게 있었다.

(7) 지학사

지학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학생의 흥미와 관심, 발달 단계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원 및 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 단원은 I.음악적 표현과 소통, II.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으로 나누었으며, 각 단원을 가창·기악·창작·감상 역역으로 나누어 학과사정 및 교사의 기호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술가곡은 대단원 2군데에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었다. [I.음악적 표현과 소통] 중 I-1. 함께 부르는 음악 안에 6곡, [II.문화적 산물로서의 음악]중 II-1. 함께 부는 음악 안에 5곡으로 총 11곡이 외국가곡과 함께 나뉘어져 수록되어 있었다.

(8) 천재교육

천재교육은 단원 도입 부분에 음악 이론을 악곡과 내용에 맞춰 제시하였다. 다양한 음악 창작활동을 통해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악 만들기’등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술가곡은 대단원 [I.음악은]중 1.우리가곡 안에 5곡이 수록되어 있었고 그 중 <보리밭>은 3.소리의 어울림 안에 2부 합창곡으로 들어 있었다.

(9) 현대음악

현대음악은 교과서에 대한 특별한 구성과 특징이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5개의 대단원과 그 안에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중간에 참고곡과 관련학습을 통해 곡의 다양성과 활동학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었다. 가곡의 분류에도 우리가곡, 서양가곡 중 이탈리아 가곡과 독일 가곡을 나누어 구분하였고 특히 극음악에 오페라와 뮤지컬, 판소리까지 세밀하게 구성하였다.

예술가곡은 대단원 [I.노래 부르기]중 1.정겨운 우리 가곡 안에 총 9곡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10)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전체 7단원으로 구성하였다. 단원의 학습 내용은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하며 축적된 수업 기술을 학습 활동에 단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적용시켜 기초 단계에서 심화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양한 연주, 감상, 창작 활동 등 배움 중심의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단원의 학습 내용을 학생 수준에 맞게 지도하거나 학교 실정에 따라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지도 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여 창의 지성 음악 활동이 수월하도록 구성하였다.

예술가곡은 대단원 [I.음악 이해]중 2.체험을 통한 음악의 이해 안에 1곡, [II. 목소리로 표현하는 음악]중 1.다양한 성악곡의 아름다움에서 5곡으로 각각 나뉘어 총 6곡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2. 가곡의 빈도수

<표-3> 제재곡 빈도수

제재곡	교	금	미	박	아	음	경	지	천	현	빈도
눈	0	0	0	0	0	0	0	0		0	9

내 맘의 강물	○			○	○	○	○	○	○		7
남촌	○	○	○		○	○		○		○	7
그리운 금강산	○	○		○	○			○	○		6
강 건너 봄이 오듯		○	○		○	○		○		○	6
님이 오시는지		○			○					○	3
떠나가는 배	○		○								2
비목	○								○		2
청산에 살리라	○						○				2
고향의 노래			○		○						2
가고파				○						○	2
추억								○		○	2
산노을				○				○			2
선구자					○				○		2
합계	7	5	5	5	8	4	3	8	4	6	

음악과 생활 10종 교과서에 한국예술 가곡이 2곡 이상 수록 된 곡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느 곡이 가장 많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눈>이 천재를 제외한 모은 출판사 9종에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고, 그 다음 <내 맘의 강물>, <남촌>이 7종에, <그리운 금강산>, <강 건너 봄이 오듯>이 6종에, <님이 오시는지>가 3종에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가곡의 조성분석

<표-4> 조성 분석

제재곡	교	금	미	박	아	음	경	지	천	현
눈	F	F	F	G	A \flat	F	F	F		F
내맘의 강물	F			E \flat	F	F	E \flat	F	F	
남촌	C	C	C		C	C		C		C
그리운 금강산	B \flat	B \flat		B \flat	B \flat			A \flat	B \flat	
강 건너 봄이 오듯		A \flat - E \flat - A \flat	B \flat		A \flat - E \flat - A \flat	A \flat - E \flat - A \flat		A \flat - E \flat - A \flat		G - D - G

이와 같이, 10종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 되어 있는 <눈>은 각 출판사 별로 조성이 3가지(F장조, G장조, A \flat)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 중 F장조가 6종 교과서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수록되어 있는 <내 맘의 강물>과 <남촌>의 조성은 F장조와 E \flat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내 맘의 강물>의 비해 <남촌>은 C장조로 다 통일되어 있었다.

<그리운 금강산>은 A \flat 조성을 갖는 지학사를 제외한 5종 교과서에 모두 다 B \flat 로 나타나 있었고, 유일하게 조성의 변화가 있는 <강 건너 봄이 오듯>은 B \flat 로 나타나 있는 미래엔과, G-D-G로 나타낸 현대음악을 제외한 나머지 4종 교과서에는 모두 다 A \flat -E \flat -A \flat 로 나타나 있었다.

4. 작사·작곡가 및 시대 구분

<표-5> 시대 구분

시대별	제목	작사	작곡
1920-1930년대	가고파	이은상	김동진
	선구자	윤해영	조두남
	동무생각	이은상	박태준
	사랑	이은상	홍난파
	부끄러움	주요한	이흥렬
	나물캐는 처녀	현제명	현제명
	봉숭아	김형준	홍난파
1940-1950년대	뱃노래	이광수	김세형
	동심초	설도	김성태
	산촌	이광석	조두남
	자장가	전규태	박재열
	보리밭	박화목	윤용하
	사월의 노래	박목월	김순애
1960-1980년대	떠나가는 배	양중해	변훈
	목련화	조영식	김동진
	꽃 구름 속에	박두진	김성태
	봄날 아침	김중열	김동진
	추심	정태준	정태준
	고향의 노래	김재호	이수인
	기다리는 마음	김민부	장일남
	꽃	김춘수	김성수
	눈	김효근	김효근
	내 맘의 강물	이수인	이수인
	남촌	김동환	김규환
	그리운 금강산	한상억	최영섭
	님이 오시는지	박문호	김규환
	청산에 살리라	김연준	김연준
	고향의 노래	김재호	이수인
	비목	한명희	장일남
	추억	조병화	김성태
	산노을	유경환	박판길
1990년대	시소타기	노영심	노영심
	강 건너 봄이 오듯	송길자	임공수
	하늘빛 너의 향기	박원자	한성훈

	하얀 겨울로 간다	박원자	김규태
	희망으로	양성우	한지영
	사랑의 꿈	김효근	김효근

이와 같이, 10종 교과서 안에 있는 한국예술 가곡 중 빈도수가 높은 5곡을 포함 모든 가곡을 정리하였다. 192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까지 고루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작곡가인 김효근과 이수인은 작사와 작곡을 동시에 하였고, 10종 교과서 안에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눈>과 <내 맘의 강물>을 만들었다. 작곡가 김규환 또한 1966년에 만들어진 <님이 오시는지>와 1975년 <남촌>에 함께 나타나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한국예술 가곡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던 1960년대부터 어려운 시기를 지난 1970년대에 각종 가곡 발표회나 출판물을 통한 음악 문화 보급이 대중화 되는 등, 일반 사람들과 한국예술 가곡의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작품들 역시 질적으로나 양식적으로 한 층 더 다양해진 것을 볼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서양기법들이 한국예술 가곡 창작에 많이 적용되었고, 반면에, 우리의 전통적인 색깔을 넣은 가곡들도 많이 나타났다.

1990년대에는 국악과 양악의 조화된 가곡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고, 남북 간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바라는 가곡들이 만들어 지기도 하였다.

5. 빈도수 높은 가곡 분석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실린 가곡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가곡 5개를 분석하였다. 이 중 작곡가와 시대가 겹치는 부분은 생략한다.

(1) <눈>

가. 작곡가의 이해

김효근은 1960년생으로 서울 마포에서 출생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을 접하였고, 중학교 때는 합창부 반주자 활동까지 하게 되면서 음악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결국 고교시절 음악선생님들은 그가 음악 작곡과에 진학하기를 권했지만 아버지의 큰 반대로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하지

만 그는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음대 작곡과 강의를 수강하며 음악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았다.

그때 3학년 재학시절 중 1981년 제1회 「대학 가곡제」에 참가하여 <눈>이란 작품으로 대상을 받게 된다. 이 곡은 많은 성악가들의 애창곡이 되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음악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다. 하지만 김효근은 전공을 살려 1985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경영정보 시스템 분야를 공부하고 1992년에 귀국하여, 대학교수로 지내다 3년 뒤인 1995년 음악계 인사와 다시 인연이 되어 많은 가곡(‘나룻배’, ‘내 영혼 바람되어’ 등)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음악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있다.

현재는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역임 중이지만 계속해서 아마추어 작곡가로서 지금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다.

<악보-3>13)



나. 곡 해설 및 분석

<눈>은 산에 눈이 내려 쌓였을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상상을 극적표현으로 노래하고 있다. 느린 독창으로 시작하고 중간 부분에서 빠른 합창으로 변화였다가 다시 느린 합창으로 마무리 한다.

이 곡의 어느 마을에 눈 덮인 산길을 바라보며 님을 향한 그리움을 가사에 표현하였다. 사랑하는 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쓸쓸한 화자의 마음을 ‘멀리서

13) 김효근 작사·작곡 <눈>

들려오는 겨울새의 소리'에 비유하며 '가슴에 새겨보리라 순결한 님의 목소리'로 지고지순한 한결같은 화자의 마음을 부드럽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나타내 주었다.

이 곡의 악곡은 4/4박자에 F장조이고, 못 갓춘마디의 여린내기로 시작한다. 곡의 빠르기는 *Andante espressivo* 즉, '느리고 감정을 실어서' 부르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한 F장조는 전체 10종 교과서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조성으로 선택하였다.

다. 악곡의 형식

이 곡은 크게 ABCA 즉, A(a+a')B(b+a'')C(c+a''')A(a+a')의 복합3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ABA의 확대된 구성으로서 곡의 흐름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A부분은 못 갓춘마디의 여린내기로 시작하여 동형진행으로 서정적으로 반복되어 흘러가다가 B부분에 *accel.*, *poco a poco cresc.*로 곡이 분위기를 점점 고도로 몰아가게 된다. 이는 A와는 다른 느낌을 줌으로써 정적으로 흘러가는 A와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분위기는 C부분까지 이어가게 되고, 부분 2부 합창이 나오면서 좀 더 강한 느낌을 준다. 마지막 A'부분에서는 *a tempo*로 다시 돌아와 처음과 같이 이야기 하듯 선율이 여리게 흐르다가 *poco a poco rit.*로 조용히 마무리 된다.

라. 연주형태

이 곡은 부분 2부 합창 형태의 곡이다. 처음부터 부분 2부 합창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처음에는 못갓춘마디 여린내기로 시작하여 *Andante espressivo*로 너무 빠르지 않게 프레이즈가 잘 연결되도록 호흡을 잘 가다듬어 부드럽게 불러야 한다.

B부분에는 자주 나타나는 8분 쉼표를 적극 활용하여 긴장감이 고조되는 곡의 분위기로 이끌어 주어야 하며, 절정을 나타내는 C부분에서는 선율이 부분 2부 합창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반주와 함께 B와 대조되는 가사전달과 고조된 느낌으로 잘 표현해야 한다. 마지막의 *poco a poco rit.* 부분은 좀 더 감정을 담아 긴 여운을 남기듯 충분히 음을 내어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마. 시대적 특징

가곡의 발전기3에 해당되는 1980년대 이때 에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젊은 작곡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어 ‘제 3세대’라 불리는 작곡가들이 활발한 음악활동을 하게 된다.

작곡가 이수인, 김효근, 임궁수 등을 중심으로 한국예술 가곡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통적인 서정적 가곡들이 만들어 지게 되었고, 새로운 현대적 기법을 사용하되 우리의 전통 가락이 포함되어 있는 곡들을 많이 작곡하였다. 또한, 다양한 세미나와 창작 가곡제 등을 통해 한국예술 가곡이 대중화 되면서 새로운 가곡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음악 역시 서양음악을 적극 수용하여 20세기 현대음악의 근본이 되는 무조음악, 음렬주의, 아방가르드 기법 등을 통해 그 시대를 표현하고자 했고, 이러한 흐름은 한국예술 가곡에도 영향을 주어 새로운 악기를 반주에 사용하는 등, 실험적이고 새로운 현대적 작곡기법을 가곡작곡에 도입하여 한국예술 가곡의 다양성을 극대화 하였다.

(2) <내 맘의 강물>

가. 작곡가의 이해

작곡가 이수인은 경남 의령 출생으로 작곡가이며 지휘자이다. 경남 마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마산동중 재학시절부터 작곡을 시작하였다. 1961년 서라벌 예술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한 후 KBS어린이 합창단과 성인합창단의 지휘자를 역임하며 많은 동요와 가곡을 작곡하였다. 현재도 파랑새 창작동요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곡들을 작곡하고 후진을 양성함으로써 동요와 가곡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곡가 이수인의 가곡은 한국적 정서를 따스한 서정성에 담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으로 대내외적으로 가치와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노크하는 정감의 따사로운 애정 없이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노래는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음악관을 설명하듯 서정적인 가곡을 많이 작곡했다.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대표적인 가곡으로는 「별」, 「고향의 노래」, 「내 맘의 강물」 등이 있다.

<악보-4>14)



나. 곡 해설 및 분석

<내 맘의 강물>은 1980년대 초반에 작곡되어 1990년대 후반 KBS FM 신작 가곡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진 곡이다.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를 동경하는 작곡가 자신의 열정을 끝없이 흐르는 강물에 비유했고, 어렵고 아픈 삶 속에서도 인생을 한결같이 아름답게 지키고 가꾸어 가고자 다짐하는 노래이다.

강물처럼 흐르는 셋잇단음표 리듬의 반주, 아름다운 가락과 노랫말로 서정적 느낌을 더해 주는 곡으로써, 많은 성악가들에 의해 연주회의 주요 레퍼토리로 공연되기도 하며, 합창곡으로 편곡되어 자주 연주되기도 한다.

이 곡의 조성은 F장조이고 박자는 4/4박자이며 빠르기는 Andantino이다. 작곡가는 반복적인 가사로 끝없는 강물의 흘러감을 ‘세월’에 비유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셋잇단음표의 리듬은 강물처럼 흐르는 정적인 느낌의 분위기로 표현해 주었다.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에서는 하여 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바라보며 외로운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었지만, 때로는 장조의 밝은 분위기로 바꾸어 지난 세월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었다.

14) 이수인 작사·작곡 <내 맘의 강물>

다. 악곡의 형식

악곡의 형식은 A-B-A'의 전형적인 3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A부분에서는 셋잇단음표의 반복으로 흘러가는 강물을 표현하며, 적절한도약과 순차진행으로 조화롭게 흘러가는 서정적 선율을 표현했다.

B부분은 A부분보다 약간 고조된 분위기를 가지고 곡의 분위기를 점차 클라이막스를 향해 간다. '맘 아파도'라는 부분에 2/4의 변박을 사용함으로써 곡의 긴장감을 이끌어 주고 있다. 그러다 바로 rit.를 통해 절제된 감정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다시 A부분이 나오면서 절제된 서정적인 곡의 분위기로 흘러가다가 rubato로 곡은 마무리 된다.

라. 연주형태

이 곡은 제창 곡이다. 곡의 박절 구조가 가사에 맞게 한 곡에 여러 박자가 혼재하고 있다. '비바람' 4/4박자에서 '맘 아파도'의 3/4박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선율이 가사에 어울리게 변화됨을 알 수 있다.

화성진행은 I IV V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변화화음들이 사용하여 흘러가는 강물의 표현을 부드럽게 잘 표현해야 한다.

(3) <남춘>

가. 작곡가의 이해

김규환은 1925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났으며, 독립 운동가였던 아버지 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다. 결국 학비가 없었던 평양사범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 김동진이 조직한 평양 교향악단에 호른을 연주하게 되면서 평양음악학교에 입학하여 음악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다 중퇴하게 되고 1947년 남한으로 월남하여 서울 동덕여고에서 교사로 재직하게 된다.

이후, KBS 어린이 합창단에 상임지휘자로 활동 하였고, 1998년까지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작품으로는 <님이 오시는지>, <기다림>, <나그네>, <남춘>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김규환 합창곡집』, 『즐거운 기악합주』 등이 있다.

<악보-5>15)



나. 곡 해설 및 분석

이 곡은 1975년 KBS 합창단 프로그램을 위하여 혼성 4부 합창곡으로 작곡되었고, 독창과 합창의 형식으로 자주 연주되고 있다. 가보지 못한 남쪽마을에 대한 동경 및 새 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남촌’은 추운 겨울과 대립되어 시적 화자가 처한 좁고 극한 상황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삶의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 봄의 느낌을 ‘진달래 향기’, ‘보리 내음새’, ‘호랑나비 떼’, ‘종달새 노래’ 등 여러 가지 감각적인 이미지로 남쪽에 불어오는 바람과 꽃향기로 봄의 느낌을 담은 서정을 노래한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잔잔한 가락으로 시작하지만 봄의 풍광을 점점 강렬한 느낌으로 표현하며 다시 안정되게 끝을 맺는다.

이 곡의 악곡은 4/4박자에 다장조이고, 주고받는 성부의 리듬으로 전형적인 ABA세도막 형식으로 되어있다. 곡의 빠르기는 Moderato cantabile, ‘보통 빠르기로 노래하듯이’로 따듯한 봄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서정적인 가사로 이루어져 있다.

다. 악곡의 형식

이 곡은 ABA' 세도막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주, 간주, 후주가 없는 것

15) 김동환 작사·김규환 작곡 <남촌>

이 특징이며 못 갓춘마디로 시작 되고 있다. A는 a와 a'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슷한 형태에서 리듬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B는 b-a''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은 3부합창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A'부분은 A부분과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치한다. A에서 주제를 서정적으로 노래하고 B를 여유 있게 이어준다. B는 빠르기와 셈여림의 변화가 A와 대조를 이룬다. 다시 A에 와서 반복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정리되는 느낌을 표현한다.

라. 연주형태

이 곡은 부분 2부 합창 형태의 곡이다. 반주는 곡 전체가 왼손은 화성을 강하게 연주하고 오른손은 그 화성을 나열하고 있다. 또한 8분음표의 화성이 곡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춘>의 원래 원형 악보에서는 독창자 중심으로 노래하게 되어 있지만, 교과서에 수록된 남춘은 부분 3부 합창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다. 조성이 C장조인 것은 원형악보와 일치했다.

전체적으로 빠르기의 변화를 잘 표현해야 하고, 풍부한 발성으로 각 프레이즈마다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불러야 한다. '꽃이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부터는 poco piu mosso로 조금씩 빠르게 움직이면서 점점 고조되었다가 다시 a tempo로 차분한 화음의 분위기로 돌아와 절제된 감정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은 p로 조용히 차분하게 마무리 한다.

마. 시대적 특징

1970년대에는, 창작 가곡이 양식 면에서 매우 다양해져, 서정 가곡을 포함한 상업적이고 친밀한 대중 가곡들이 많이 작곡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개인 작곡발표회나 서울음악제 등 신작 가곡 발표회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가곡에 대한 정리 작업이 성행하여, 전 시대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가곡이 음반집이나 악보집에 수록되어 발표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곧 어려웠던 6.25시기를 거쳐 민족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 여유를 찾아가고 있음을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남춘>은 이러한 상황 속에 서정적이면서 여성적인 가사와 선율로 안정적인 시대의 흐름을 대변하듯 앞으로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표현해 주고 있다.

나. 곡 해설 및 분석

‘그리운 금강산’은 1961년 6.25전쟁 12주년을 기념하여 KBS의 청탁을 받아 작사·작곡된 곡이다. 원래 이 곡은 작사가 한상익과 작곡가 최영섭이 공동 작업한 칸타타 <아름다운 내 강산>의 11곡 중 한곡으로, ‘동해의 여명’, ‘정선 아리랑 주제에 의한 환상곡’과 산·강·바다를 주제로 각각 3곡, 모두 11곡으로 되어있다.

이 중 <그리운 금강산>은 ‘산’에 해당하는 노래로, 민족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담아, 변함없이 아름다운 금강산에 가 보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금강산’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에게 동경과 같은 장소이기도 하다. 악보에 자주 나타나는 accent나 tenuto가 바로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려 강함과 아쉬운 긴 여운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도 가보지 못하는 애뜻하고 그리움의 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곡은 4/4박자의 B♭ 장조로 되어있고, 빠르기는 Moderato Cantabile로 그리움에 목말라 노래하듯 서정적으로 불러주어야 한다.

다. 악곡의 형식

이 곡은 전주 9마디 후에 못갓춘마디 형태로 시작한다. A-A'-B로 구분할 수 있다. B부분은 후렴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A부분은 크게 a-b로 나누며, a부분은 서정적으로 b부분은 강렬한 형태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B부분과 A와는 다른 c와 d로 구분되어 지는데, c부분에서 동형 진행을 이용해 점점 고도되는 분위기를 이끌고 d에 이르러 클라이맥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전체 3절까지 이루어져 있는 유절형식이며, 마지막 후렴구 끝에 후주 세마디를 두어 긴 여운을 남기며 끝난다.

라. 연주형태

이 곡에서 셋잇단음표가 자주 나오는 것이 특징이며, 총 35마디로 이루어졌다. 전체 3절까지 유절형식으로 되어 있고 제 1절은 ‘맑고 고운 산’, ‘만이천봉’만을 나타내어 금강산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해야 하며, 제 2절은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을 나타내는 모습을, 제 3절에서는 내금강의 여러 명소들을 언급하며 다시 보게 될 금강산의 모습을 생각하며 염원을 담아 노래해야 한다.

마. 시대적 특징

1960년대에는 학교 교육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음악회나 독창회, 음반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가곡은 급속도로 보급되어 갔다. 이 시기에는 작곡가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가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현대적 작곡 기법은 주로 젊은 음악가들에 의해 추구되었다. 그 대표적인 작곡가로 백병동을 말할 수 있겠다. <그리운 금강산>은 이러한 대중을 대변하듯 남북한의 괴리를 인식하고 현대적 음악기법으로 화해와 그리움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5. <강 건너 봄이 오듯>

가. 작곡가의 이해

충남 천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작곡가 임공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와 단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가곡과 기악곡의 작품 활동을 하며 작곡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된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조지아 주립대 교환교수로 있으면서 KBS의 신작가곡 위촉으로 <강 건너 봄이 오듯> 등 10여편의 가곡을 발표하며 가곡 작곡가로서 입지를 다진다.

이후 MBC 가을맞이 가곡의 밤, SBS 창단음악회, 서울 예술가곡연구회 가곡의 밤, KBS신작가곡의 대향연 등 국내 여러 음악 단체에서 작품을 발표하면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작곡가로 발전해 나갔다.

그의 가곡은 특선 한국 가곡, 나의 사랑 나의 노래, 조수미 가곡집, KBS FM 가곡집 등 많은 음반에 수록되었으며, 가곡 외에도 오페라를 비롯한 성악곡과 실내악곡, 브라스 밴드, 무용곡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 또한 꾸준히 작곡하고 있다.

나. 곡 해설 및 분석

<강 건너 봄이 오듯>은 임공수의 가장 대표적인 가곡작품으로 KBS신작가곡집에 수록된 후 소프라노 조수미의 연주로 음반이 발매되면서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현재는 많은 성악가와 성악학도 뿐만 아니라 많은 합창단에서도 널리 연주되는 한국가곡 중 한 곡이 되었다.

가사의 변화에 따라조를 바꾸어 극적인 정서를 만들어 내고 가락의 부드러운 리듬과 셋잇단 리듬의 반주가 조화를 이룬다.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선율로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 곡의 가사는 강마을에 얼음이 풀리고 봄이 오길 기다리는 염원을 담고 있다. 즉 가사에서 나타난 ‘짐실은 배’는 화사한 봄을 알리는 소식이며, 봄이 새 벽안개를 헤치고 왔다고 표현함으로써 간절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가사에서 나타난 봄을 향한 염원을 작곡가 임공수는 서정적이고 화려한 선율로써 화창한 봄을 표현하였다.

이 곡의 조성은 Ab장조이고 박자는 4/4박자이며 빠르기는 ♩=64정도의 Andante 보통빠르기이다.

<악보-7>17)



다. 악곡의 형식

악곡의 형식은 A-B-A'의 기본적인 3부 형식에 4마디의 악구가 추가되어 확대된 3부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A부분은 셋잇단음표의 아르페지오 반주 위에 서정적인 선율선이 얹혀진 형태로 나타나지만, 보통의 서정가곡과는 달리 4도나 6도의 넓은 도약을 통해 감정의 폭을 형성함으로써 화려한 느낌을 더해 준다. B부분은 c단조로 제시되며 급작스런 분위기의 전환을 보인 후 Eb장조와 Ab장조로 지속적인 진조가 이루어진다. 곡의 분위기를 변화시켜 준다.

A'부분은 다시 원조인 Ab장조로 돌아오는데 넓은 음역의 화음반주와 함께 다이내믹도 커져 화려한 곡의 피날레를 향해 나아간다. 결국 곡의 마지막은 넓은 음역의 아르페지오 반주로 화려하게 마무리된다.

17) 송길자 작사·임공수 작곡 <강 건너 봄이 오듯>

라. 연주형태

이 곡은 A부분이 물 흘러가듯 상, 하행 진행으로 연속하여 나타난다. 셋잇단 음표의 아르페지오 반주가 선율을 부드럽게 이어준다. 그리고 B부분에서 갑작스런 전조가 됨으로서 밝은 느낌의 A와 어둡고 슬픈 느낌의 B부분이 조성적 대조를 이루게 된다. 임시표에 의한 조바꿈에 유의하며 악곡의 다양한 느낌을 표현해 주도록 연주해야한다.

특히, B부분은 피아노 반주가 당김음 리듬을 통해 짧은 악구를 중심으로 반복되어 선율을 이어나간다. *piu animato*로 생기 있게 연주하지만 긴장된 느낌을 들게 하고 있다. 다시 A'부분으로 돌아와 전체적인 선율선과 리듬은 A와 거의 동일하지만 음역이 넓어지고 셈여림이 커진다. 마지막은 '짐 실은 배가 저 만큼 새벽안개 헤쳐 왔네'라고 하면서 봄을 기다리는 염원을 담아 절정의 페르마타로 곡을 마무리 한다.

마. 시대적 특징

1990년대에는, 무조건적인 외래수용이 아닌 우리나라 전통 음악의 국악과 양악이 함께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또한 모든 창작과, 연주 등을 대중화시키려는 노력이 활발히 되었고, 동시에 남북 간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민족의 음악적 교감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였다.

대표 작곡가와 작품으로는 송길자 작사, 임공수 작곡의<강 건너 봄이 오듯>이 있다. 이는 전형적인 서양적 스타일의 가곡이지만 우리의 전통 음악양식을 갖추고 있고, 우리의 정서 즉,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아 흐르는 물과 함께 따듯한 봄이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은 남북한의 화합을 위한 대중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라고 볼 수도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음악과 생활」 10종 안에 있는 한국예술 가곡들이 시대별로 고루 잘 반영되어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 나올 2015 교육과정 음악 교과서의 발전 방안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음악과 생활 10종 교과서에 한국예술 가곡이 2곡 이상 수록된 곡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빈도수에 따라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지 가곡 5개를 골라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 한국 예술가곡이 시작된 1920년부터 1990년대까지 가곡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고, 한국 예술 가곡의 음악적 특징과 시대별 빈도수, 곡에 대한 이해를 연구하였다.

작곡을 시작한 초기인 1920년대, 자리를 잡는 시기인 1930-40년대, 성숙기인 1950-60년대, 새로운 기법으로 작곡되기 시작하는 1970년대 이후 이렇게 4시기로 나누어 한국 예술가곡의 발전경로와 특징을 그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와 작품을 통해 살펴보았다.

각 시대별 분류의 특징은 1920-1930년대 일제 강점기 때의 조선총독부 지휘 아래의 음악으로 자국의 조선 점령 정책의 강화 수단으로 음악을 활용하였다. 많은 제약과 역경 속에 우리의 가곡 작품을 만들어낸 홍난파와 현제명, 박태준 작곡가가 있다. 대표곡으로는 이은상 작사·박태준 작곡의 <동무생각>이 있다. 광복 후 1940-1950년대 음악은 해방가요의 등장으로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점점 늘어나면서 최초의 우리나라 음악교과서도 나오게 된다. 대표곡으로는 이광석 작사·조두남 작곡의 <산촌>이 있다.

한국예술 가곡이 1960년-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발전기1, 발전기2, 발전기3로 나뉘면서 진정한 가곡의 전성기로 접어들게 된다. 한국예술 가곡의 현대적 작곡기법을 활용한 수많은 가곡들이 나오게 되고, 1990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표곡으로는 한상익 작사·최영섭 작곡 <그리운 금강산>, 김동환 작사·김규환 작곡 <남촌>, 이수인 작사·작곡 <내 맘의 강물>, 김효근 작사·작곡 <눈>, 박원자 작사·김규태 작곡 <하얀 겨울로 간다>가 있다.

교과서에 빈도수가 높은 제재곡으로는 <눈>이 천재를 제외한 모은 출판사 9종에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고, 그 다음 <내 맘의 강물>, <남촌>이 7종에,

<그리운 금강산>, <강 건너 봄이 오듯>이 6종에, <님이 오시는지>가 3종에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빈도수가 높은 5곡의 가곡을 가. 작곡가의 이해, 나. 곡 해설 및 분석, 다. 악곡의 형식, 라. 연주형태, 마. 시대적 특징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눈>의 김효근 작곡가에 대한 이해로 음악과 무관한 전공을 하였지만 음악에 재능과 소질이 있어 「대학 가곡제」에 참가하여 대상을 받게 되면서 꾸준한 음악작곡 활동을 하고 있는 김효근 작곡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 곡은 산에 눈이 내려 쌓인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로 표현하였고, 그런 눈 덮힌 산길을 바라보며 님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쓸쓸한 마음을 가사에 담았다. 특히 이 곡은 ABCA의 복합3부 형식으로 곡의 흐름을 다양하게 표현했고, 가곡 발전기3에 해당되는 1980년에는 새로운 현대적 기법이 사용되었고, 다양한 세미나와 창작 가곡제 등 다양한 종류의 음악이 젊은 작곡가들로 통해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내 맘의 강물>의 이수인 작곡가의 대한 이해로 그는 학창시절부터 음악을 일찍이 접하고 KBS어린이 합창단과 성인합창단의 지휘자를 역임하며 많은 동요와 가곡을 작곡하여 가곡발전에 큰 영향을 준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곡은 1990년대 후반 KBS FM신작 가곡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진 곡으로 강물처럼 흐르는 셋잇단음표의 리듬과 피아노의 반주가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를 사랑하는 작곡가의 마음을 음악에 비유했음을 알 수 있었다.

ABA'의 전형적인 3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가곡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셋잇단음표와 적절한 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AB의 대조가 조화롭게 흘러가는 선율임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남촌>은 작곡가에 대한 이해로 다른 작곡가들과는 달리 평양에서 태어나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낸 김규환은 평양 교향악단에서 호른을 연주하게 되면서 음악공부를 하였다. 1947년 남한으로 월남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님이 오시는지>, <기다림>, <남촌> 등 주옥같은 가곡을 작곡하였다.

이 곡은 1975년 KBS 합창단 프로그램을 위해 혼성 4부 합창곡으로 작곡되어 독창과 합창의 형식으로 많이 연주되고 있다. 추운 겨울과 대립되는 <남촌>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삶의 희망을 표현하였다. ABA' 3부 형식으로 전주, 간주, 후주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조성이 C장조로 원형 악보와 일치하였다.

이 곡이 작곡된 1970년대에는 창작 가곡이 양식 면에서 매우 다양해졌고,

6.25 시기를 거친 민족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네 번째, <그리운 금강산>은 작곡가에 대한 이해로 최영섭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에서 지휘법을 공부해 한국에 돌아와 중학교에서 교사를 역임하던 중 <그리운 금강산>을 작곡하게 된다. 그 후 KBS 방송 음악프로를 맡으며 대중들과 음악적으로 많은 소통을 나누었다.

특히 이 곡은 1961년 6.25전쟁 12주년을 기념하여 KBS의 청탁을 받아 작곡된 것인데 작사가 한상익과 공동 작업한 칸타타 <아름다운 내 강산>의 11곡 중 하나이다. 민족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염원을 담아 아름다운 금강산에 가고픈 우리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 번째, <강건너 봄이 오듯>의 임궁수 작곡가에 대한 이해로 음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가곡과 기악곡의 작품 활동을 하며 작곡가로서 활발히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었다. KBS의 신작가곡 위촉으로 이 가곡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곡은 강마을에 따뜻한 봄이 오길 기다리는 마음을 음악에 표현한 것이다.

ABA'의 3부 형식에 보통 서정가곡과는 달리 AB가 완전히 다른 대조를 이루며 잦은 셋잇단음표의 등장과 아르페지오 반주가 음악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준다. 이 곡이 작곡된 1990년대에는 국악과 양악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음악이 많이 나타났고, 남북간의 사이에도 화합과 교류를 위한 민족적 음악의 색깔이 강한 음악이 많이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시대별 빈도수를 보았을 때 80년대 2곡, 60년대와 70년대, 90년대에 곡이 각각 1곡씩 나왔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제시해야 될 음악교과서가 고르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음악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가곡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대별 제재곡이 선정되어 보다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미애, 「한국 예술 가곡」, 시와 시학사, 1995
나진규, 한국 가곡의 이해, 가온음 출판사, 2015
박봉독, “Dewey의 예술론” 교육학 연구. 제17권 제1호, 1979
이강숙·김춘미·민경찬, 우리양악 100년, 현암사, 2002
이상만, 「음악개관」, 한국 예술총람,
Charles Leonhard, Robert W. House 공저, 안미자 역,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1992

<학위논문>

- 김성경,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한국가곡의 시대별 분석’
-성신여자대학원 음악교육전공, 2006
박대응, ‘한국가곡의 지도방법 연구’ -신작가곡 「그대 그리움」, 「눈」,
「내 맘의 강물」, 「강 건너 봄이 오듯」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 음악교육전공, 2011
송현진, ‘고등학교 1학년 8종의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한국가곡 비교분석’
-빈도수가 높은 7곡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2008
정희진, ‘한국가곡의 시대적 연구’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가곡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대학원 음악교육전공, 2008

<교과서>

- 김광옥 외4명 「음악과 생활」, 아침나라, 2014
김용희 외4명 「음악과 생활」, 금성출판사, 2014
민은기 외3명 「음악과 생활」, 천재교육, 2014
양종모 외5명 「음악과 생활」, 음악과생활, 2014
윤용재 외7명 「음악과 생활」, 경기도교육청, 2014
장기범 외5명 「음악과 생활」, 미래엔, 2014
주광식 외2명 「음악과 생활」, 박영사, 2014
황병숙 외5명 「음악과 생활」, 지학사, 2014
허화병 외4명 「음악과 생활」, 현대음악, 2014

Abstract

A Study on Korean Arts Songs of High School Textbook 「Music & Life」 according to 2009 Revised Curriculum

Yoon, Eungkyeong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upcoming 2015 curriculum music textbooks by comparing and analyzing if Korean arts songs in 10 High School music text book 「Music & Life」 according to 2009 revised curriculum are reflec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dible range and era.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flow of Korean art songs by analyzing history and age-specific mus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rt songs. Each era's characteristics are divided into 4 types, Japanese colonial era songs in 1920 to 1930, after the liberation songs in 1940 to 1950, Korean art songs in 1960 to 1980 and modern songs in 1990'.

The songs that represent each 4 eras include <Thinking Friends>, written by Eunsang Lee and composed by Taejun Park in 1920-1930, <Mountain Village>, written by Gwangsuk Lee and composed by Doonam Jo in 1940-1950, <Nostalgic Geumgang Mountain> written by Sangeok Han and composed by Youngseop Choi, <Nostalgic Geumgang Mountain> written by Sangeok Han and composed by Youngseop Choi, <Namchon>, written by Donghwan Kim and composed by Gyuhwan Kim, <The river of my heart>, written & composed by Sooin Lee, <Snow>, written &

composed by Hyogeun Kim in 1960 to 1980 comprehending developing era 1, 2 and 3, and <Going to the white winter>, written by Wonja Park and composed by Gyutae Kim in 1990'.

By selecting 5 the most frequently shown songs from high school textbook Korean art songs based on this theoretical background, a. understanding of composer, b. songs' commentary & analysis, c. musical form, d. performance style and e. characteristics of each era are analyzed.

As a result, 2 songs from 1980', 1 each song from 60', 70' and 90' were selected, and even though each publisher has 1 song to 10 songs at maximum for each era, they were not evenly distributed.

Through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ere is a realization that music textbooks according to 2015 curriculum is an important part of Korean music flow and textbooks will sufficiently reflect backgrounds of songs, musical theory, explanation of the composers and various musical activities in order to preserve the beauty of Korean art songs.